

# 2014. 3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 **MBC**

# 2014년 3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대전문화방송

## 1. 회의개최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수		비 고
		위 원	방송국	
2014.3.25.	대전MBC 대회의실	8/10	6	

- 시청자위원 불참자 명단: 장동환, 송인덕 위원
-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 김창욱 사장, 김미리 경영기술국장, 김종찬 편성제작국장, 서주석 보도국장, 차태현 방송기술센터장, 오승용 경영심의부장

##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13	4	-	1	18	-	18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계
건 수	7	11	-	18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5건	5 건	2월
교양	'공간 그곳' 다큐멘터리 꾸밈없는 인터뷰, 영상 시청자들에게 가깝게	'공간 그곳' 다큐멘터리 인터뷰, 영상 꾸밈없이 시청자들에게 가깝게 접근	2월
보도	도시철도 2호선 공사방식 선정 등 관련 지속적 보도	도시철도 2호선 관련 지속적 보도하고 있음	2월
보도	지방선거 출마자에 대한 정보 시청자들에게 전달 필요	지방선거 후보자 계속하여 보도	2월
교양	50주년 관련 특집 프로그램, 공익사업, 엠블렘 등 지속적 홍보	50주년 관련 특집 프로그램, 공익사업, 엠블렘 등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음	2월
보도	시사플러스에서 세종시 관련 현안문제 다루기 바람	시사플러스에서 세종시 관련 현안문제 다룸	2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해당사항 없음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분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교양	<p>시사플러스에서 「무늬만 지역디자인 센터? / 황해경제자유구역, 해법은?」 (3/14)을 다루었다. 이번 주 시사플러스에서는 대전시의 지역 디자인 산업과 황해경제자유구역을 둘러싼 문제점과 이해관계를 심도 있게 다루는 시간이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지역디자인 센터의 설립과 운영방식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긍정적이었다. 이와 함께 적절하게 사용된 다이어그램은 시청자들에게 간단하고 명확하게 내용을 전달해 주었다. 다음으로 사업 축소와 사업자 선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타당한 자료조사를 통해 지자체의 대응을 지적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다만 유사한 유형 국내의 사례를 통해 해결방안에 대한 제안을 해주었다면 시청자의 관심과 이해도를 더욱 높여줄 수 있었을 것이다. 사회자와 PD가 스튜디오에 나와 전체 내용에 대한 정리와 요약을 통해 설명해 주어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나, 전반적으로 문제점 도출에 비해 해결방안을 다루는 내용은 다소 부족하여 아쉽게 느껴졌다(오덕성).</p>	<p>타당한 지적에 공감한다. 유사한 국내외 사례를 통한 해결방안이 제시됐더라면 보다 완성도가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제작진은 시사 프로그램 제작 시 항상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해결방안 제시를 위해 다각도로 많은 노력을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가 있기도 하다. 그렇더라도 좋은 프로그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p>	<p>편성 의견참고</p>
보도	<p>이번 시사광장에서는 「증가하는 사교육, 공교육이 흔들린다」 (3/16)제목의 토론 프로그램이었다. 대전의 사교육 증가율이 높은 원인과 선행학습 금지법에 따른 과제를 알아보고 공교육을 바로세울 방안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이었다. 교육청 대표와 교사, 학부모로 구성된 토론자들은 돌아가며 대전 지역의 사교육이 왜 증가하는가에 대한 원인을 자신의 위치에서 의견을 내세우고 서로의 이해를 위해 추가적인 설명으로 답변해주어 시청자들의 공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토론자들의 말이 끝날 때마다 사회자의 정리멘트는 자칫 지루할 수 있었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다음 질문의 답변을 유도하였다. 다만, 토론 이외에 추가</p>	<p>추가 영상과 인트로 부분 영상 자료 삽입에 대해 제작진과 논의 중이다.</p>	<p>보도 의견참고</p>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적인 인터뷰의 내용이나 영상을 추가하여 준다면 시청자들의 흥미를 더욱 높여 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오덕성).		
보도	타 방송사 뉴스 프로그램을 보면 하단에 스크롤자막을 내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뉴스를 예측할 수 있고 그 날 발생한 행사, 사건 등을 조망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뉴스데스크에는 스크롤자막이 없는데 이를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김형주).	현 장비로 도입가능 여부를 고려 중이다. 다만 스크롤이 본방에 대한 집중도를 해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하고 있다. 서울MBC 본사와의 통일성도 고려 중이다.	보도 의견참고
교양	'공간 다큐멘터리 그 곳'을 시청하였다. 대전MBC에서 제작한 청양편, 강경편 등을 보았다. 기존의 휴먼 다큐와는 차별화된 공간이라는 입지적 조건을 설정하여 전개하는 형식이라서 새롭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프로그램 흐름은 기존의 휴먼 다큐와는 별반 차이가 없이 보였다. 공간 속에서 주제를 끄집어내어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데 인물 위주로 진행을 하다보니 공간 다큐멘터리라는 타이틀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김형주).	올바른 지적이다. 공간 타이틀에 어울리고 기존의 인물위주의 휴먼 다큐와는 차별화된 전개방식, 제작기법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	편성 의견참고
보도	정보화, 글로벌화 시대의 21세기에서 지역 방송이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지역가치'의 의미를 빼 놓고서 생각해 볼 수 없다. 지역대학이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려움 가운데서 지역대학의 당면과제도 '지역가치'를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전 충남에는 상당수의 대학이 포진해 있다. 지역대학이 갖고 있는 콘텐츠를 잘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 방송을 통해 지역교육혁신 뿐만 아니라 지역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있어서도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김형주).	충청의 몇 등 지역 정체성 관련 기획뉴스를 준비 중이다. 이 기획 뉴스에 어필할 수 있게끔 고민을 하겠다.	보도 의견참고
보도	지역의 지속적 발전을 기대하기 위해서 지역인재 양성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지역대학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한 경쟁력을 가져야한다. 지역대학 발전을 위해 언론이 보다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오덕성).	지역 대학 기획시리즈 준비 중이다. 지역대학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발전을 기획시리즈에 담을 수 있도록 연구하겠다.	보도 의견참고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보도	<p>시사광장에서 ‘증가하는 사교육 공교육 흔들린다’(3.16.)라는 타이틀로 교육문제를 다루었다. 사교육 관련하여 초등 사교육, 중등 사교육이 각각 입장차가 있기 마련인데 1시간 내에 사교육 전반적인 입장을 취급하려다 보니 프로그램 구성에 허점이 많이 보였다. 출연패널로는 교육청 중등교육과장, 전교조 정책실장, 초등학교 교사, 학부모 1명 등 4명으로 구성되었다. 토론 내용 중 학부모는 ‘사교육 받지 않고 아이들 잘 키웠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프로그램 기획의도하고는 동떨어진 것 같고 초등학교 교사에게 중등 사교육(수능 영어 등)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애매했고 전교조 정책실장은 현재 교육감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프로그램 기획의도에 걸맞는 토론 프로그램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 이 프로그램을 보고서 정말 패널을 어떻게 섭외하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완성도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꼈다. 사교육 문제는 주제 등 범위를 세분화해서 시리즈로 다루어도 좋겠다(유덕순).</p>	<p>패널 선정에 더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 프로그램 완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p>	<p>보도 의견참고</p>
보도	<p>시사광장(3/23)에서 ‘6.4 지방선거 유권자가 주인공이다’라는 주제로 토론을 가졌다. 투표독려 하는 내용이 공감 간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똑바로 의식 있는 투표 행사를 하기 위해 방송의 역할이 지대하다. 후보를 제대로 알리는 일, 검증하는 일 등 우리 지역의 참된 일꾼을 뽑기 위해 다각도의 정보를 제공해 주기 바란다(한찬희).</p>	<p>현재에도 기획프로그램, 토론 프로그램 등에서도 지방선거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지방선거와 관련 정책 토론, 매니페스토 활동 등 보도기획물과 정규 뉴스 등을 통해 정책선거로 이어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p>	<p>보도 수용</p>
교양	<p>프란치스코 교황이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대전 충남지역에서 열리는 아시아 청년대회에 참석한다. 개막미사가 충남 당진 솔피성지에서 폐막미사가 서산 해미읍성에서 집전된다. 솔피성지나 해미읍성 등 천주교 행사가 열리는 대전 충남 중요지역을 사전에 집중 취재해 방송할 필요가 있겠다. 일반 시청자들에게도 그 의미와 중요성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본다(김명수).</p>	<p>교황의 우리 지역 방문은 그 의미와 상징성이 남다르다. 그래서 ‘아침이 좋다-충청상징 50’에서는 방문 시기에 맞춰 지역의 가톨릭 성지와 주요 성당, 순교자 등을 여러 편 제작하려고 기획중이다.</p>	<p>편성 수용</p>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보도	국회미방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는 대덕과학연구단지과 관련된 안전들이 많다. 미방위에 여러 안전들이 계류되어 있어 연구단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보도해 주길 바란다(김명수).	대덕특구의 현실, 어려움을 다각적으로 취재하여 보도하겠다.	보도 의견참고
보도	시사광장(3/9) '통합신당 등장, 지방선거 지형 바꾸나?'에서는 통합신당 등장으로 인한 정치지형의 변화에 관한 토론을 가졌다. 주제에 맞게 토론이 잘 진행이 되었는데 진행자의 클로징 멘트에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라고 언급을 했다. 주제에 맞지 않는 멘트라서 시청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다(김명수).	프로그램 제작시 진행자 멘트가 프로그램 주제와 맞게 어울어지도록 노력하겠다.	보도 의견참고
기타	3.1절 특집 '아버지의 일기'를 인터넷 기사를 보고 알게 되었다. 대전에서 제작하여 초방을 전국방송 했다는 것, 내용도 알차다는 것 칭찬해 주고 싶다. 다시보기를 할려고 홈페이지를 살펴보니 탑재되어 있지 않았다. 특집 다시보기에 올려놓기를 바란다.(김경숙).	다시보기 홈페이지에 올려놓았다.	경영 (전산) 수용
보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기관장의 현직 프리미엄 보도가 간간이 있다. 사전선거운동과 관련된 팩트는 자세하게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기관장이 활용하는 관용자동차나 관용핸드폰, 업추비 등 국민들 세금으로 운용되는 것들이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있는지 보야 할 것이다. 프리미엄 차원을 넘어선 현직 기관장의 사전 선거운동 감시가 필요하다(김경숙).	세종시장의 전화 논란 등 출마 선언한 현재의 자치단체장을 포함한 지방선거 출마자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보도 수용
보도	시사플러스에서 공주대 교수 성추행을 집중적으로 잘 다루어 교육부에서 앞으로 성추행교수를 해직할 수 있도록 신설조항이 만들어진다. 이 기회에 공주대 교수로서 프로그램에 고맙게 생각한다. 다른 이야기인데, 자막을 뽑을 때 기자의 품격을 의심할만하게 뽑아서 안된다. 일전 인터넷 신문에서	뉴스품격에 걸맞는 자막, 일반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간결한 자막을 뽑겠다.	보도 수용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p>‘계룡건설 대전MBC를 삼키나?’ 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품격 없는 자막처리였다. 대전MBC뉴스에서는 품격을 지키지 못하는 자막을 배제해 주길 바란다(김경숙).</p>		
<p>보도</p>	<p>시사광장은 토론 프로그램이다. 어떤 패널이 출연했느냐에 따라 프로그램이 논쟁을 띠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된다. 토론 프로그램이 당위론적인 이야기의 나열로서 규범적 성격의 프로그램으로 빠져들면 알맹이 없는 토론 프로그램이 된다. 구성안 한 코너에는 찬반 의견이 있는 내용이 삽입되어 패널들 간 토론을 유도할 수 있게 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김경숙).</p>	<p>패널 토론이 흥미진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진행을 구성하겠다. 토론 프로그램으로서 위치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 의미 있는 주제로 액티브한 진행을 하도록 노력하겠다.</p>	<p>보도 의견참고</p>
<p>교양</p>	<p>아나운서의 멘트 중에 자주 ‘-인 것 같습니다’ 어미처리를 한다. 이를테면 ‘날씨가 덥다’와 날씨가 더운 것 같다’라는 표현은 차이가 있다. 확실한 표현에 --같다라는 표현은 피해야 된다(김영광).</p>	<p>올바른 지적이다. 아나운서, 리포터들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시키고 있다.</p>	<p>편성 수용</p>
<p>보도</p>	<p>세종시 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해 대전MBC가 시의적절 하게 추적보도를 잘 하고 있다. 계속해서 후속보도를 통해 부실시공 문제를 짚어주길 바란다(김영광).</p>	<p>의미 있는 단독보도였다.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는 계속 추적하여 특종 보도의 의미를 살려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p>	<p>보도 수용</p>
<p>보도</p>	<p>대학에서 기술 관련 특허를 받으면 이를 산업과 연계해 꽃을 피워야 한다. 기업과 연계하여 진정한 산학발전의 모델이 될 수 있게 보도를 통해 이를 연결해 주면 좋겠다(박희원).</p>	<p>산학연 관련 보도 준비 중에 있다.</p>	<p>보도 의견참고</p>

